

IV. 생업(生業)

IV. 생업(生業) 1. 농사(農事)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날부터 농경사회(農耕社會)를 이루어 일정한 토지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순박한 인심속에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민속을 이루어 왔다. '농자(農者)는 천하의 근본이라.'는 생활 신념으로 부지런히 갈고 씨뿌려 거두는 부지런한 민족성을 이어 왔다. [1] 농경 작업 도구 (農耕作業道具) 우리 농촌은 산업화 이전인 1960년대까지도 단순한 원시적 농구를 가지고 노동 집약적 영농 방식을 유지해 왔다. 농부의 체력에 의존하는 작업에는 소규모의 간단한 농기구를 이용했고, 약간 발전된 방식으로는 소(농우)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고작이었다. 소 한 마리가 견장한 농부 5명이 해야 할 작업량을 감당 할 수 있었다. (1) 인력(人力)으로 사용하는 농구 과거 우리의 저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단순한 농기구를 인력(人力)으로 사용하여 농업을 계속해 왔다. 그 대표적인 농구(農具)는 다음과 같다. . 호미 : 김 매는 데에 사용하는 농기구로써 앞에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쇠날에 가는 목이 휘어 꼬부라지고 넘어간 데에 둥근 나무로 자루를 박았다. . 낫 : 시우쇠로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안쪽으로 날을 내고 뒤 끝 곧은 솜베에 나무 자락을 박아 풀, 나무, 곡식 따위를 베는 데에 쓴다. . 갈퀴 : 마른 풀이나 나뭇잎, 검불 또는 곡식 등을 긁어 모으는 데에 쓰는 농기구인데 여러 개의 대쪽이나 찰리 또는 굵은 철사 드요이 끝을 갈고랑지게 '휘어' 그 한 끝을 부채살처럼 일매지도록 퍼서 그 중간을 가로댄 나무에 얹어매어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다른 한끝은 오므린 뒤에 긴 자루를 붙였다. . 발고무래 : 고무리 4~6개의 발이 발린 것인데, 흙덩이를 고르고 씨를 뿌린 뒤에 흙을 긁어 덮는 데에 쓰인다. . 괭이 : 땅을 파거나 제초(除草)등 여러 가지 작업에 쓰는 농기구로서 삼괭이, 토란입괭이, 가짓입괭이 등 모양이 넓적한 쇠의 'ㄱ'자와 같은 곡구멍에 긴 자루를 끼운 것이다. . 쇠스랑 : 땅을 파헤쳐 흙을 고르거나 두엄, 풀무덤 등을 쳐 내는 데에 쓰는 갈퀴 모양의 농구이다. 서너 개의 쇠꼬챙이로 발을 만들고 긴 나무 자루를 박은 것인데 '철탑(鐵塔)'이라고 부른다. . 곡괭이 : 굳고 단단한 땅을 파는 데에 사용하는 괭이의 일종이다. . 삽포 : 눈에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에 쓰는 농구구의 일종인데 폭 12cm, 길이 14cm 가량 되는 췌조각의 머리쪽 가운데에 고통이 비죽히 내밀어 붙은 네모진 삽이다. 흔히 노인들이 눈에 나갈 때 지팡이 대신 잡고 다니기도 한다. . 삽(插) : 땅을 파고 흙 따위를 뜨는 데 쓰는 농구로서 모양이 보습과 비슷하고 나무 자루가 달렸다. . 가래 :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농구인데, 날을 끼운 넓죽한 몸체에 긴 자루를 박고 몸 양편에 구멍을 뚫고 가래줄을 매어 한 사람이 가래자루를 잡고 흙을 떠서 밑면 두 사람 이상이 가래줄을 끌어 당겨 흙을 목표점에 던진다. 줄이 길이는 용도에 따라 조절한다. . 잣박 : 농가에서 거름으로 쓸 재를 담은 그릇인데 짚이나 땃뭉치 덩굴 또는 사리나무, 대나무 등으로 엮어 만든다. . 귀때동이 : 귀때동이는 농가에서 오줌이나 인분을 담아 장군에 담아 부을 때 사용하는 그릇인데 흔히 '오줌동이'라고 부른다. '귀때'라는 것은 액체를 담은 그릇의 부리인데 그곳으로 무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귀때그릇' '귀때항아리'등의 그릇이 있다. . 두레와 용두레 : 관개(灌溉)시설이 거의 원시적이었던 옛날에는 두레와 용두레를 이용했다. 두레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의 논이나 밭에 퍼 붓는 기구인데, 가벼운 오동나무나 그밖의 나무로 위를 넓게 퍼지고 밑바닥은 몹시 좁게 만들어 네 귀에 줄을 달아 사람이 물을 퍼올린다. 그런데 용두레는 석가래 3개를 세모뿔처럼 세우고 그 꼭지점에 두 러박을 매달아 손잡이를 쥐고 물을 퍼 올린다. (2) 소의 힘을 이용하는 농기구 우리 나라는 1960년대까지는 전근대적 영농 방식으로 노동 집약적인 원시적 농업 형태였다. 농민의 농동력이 생산 수단이었고 여기에 소(한우)가 작업 능력을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였다. 소(한우)를 이용하여 쟁기질, 씨레질, 나래질, 시태질 등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소를 이용하는 농사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쟁기·극쟁이: 논밭을 가는 데에 사용하는 농구로서 쟁기와 극쟁이를 사용했다. 쟁기는 소나무나 참나무 등으로 몸체를 만들고 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다 벼를 덧댄다. 극쟁이는 쟁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로 밭을 가는 데에 쓰인다. 그쟁이는 쟁기로 갈아놓은 논밭에 굴을 타거나 또는 돌이 많은 밭을 쟁기로 깊게 갈 수 없을 때에 얇게 갈기 위해 쓰인다. 극쟁이는 보습은 있으나 벼가 없고 소 한 마리가 끌거나 또는 사람이 지게를 지고 끌어 매어 극쟁이를 끌어 밭갈이를 한다. 쟁기질은 소 한 마리가

끄는 호리질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 두 마리에 기다란 멍에를 매워 쟁기를 끌게 하는 거리질(쌍거리질)도 있다. 우리 나라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에서는 호리질이 일반적으로 북부 지방과 강원도 지방의 산악 지역에서는 대개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거리질이 보통이다. 비탈이 심하면 지면이 들쭉날쭉하여 소 한 마리의 호리질로서는 능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도 논밭을 특별히 깊게 갈 때에도 거리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써레 : 논이나 밭의 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부수는 기구를 써레라고 한다. 토막나무에 둥글고 끝이 뾰족한 살을 6~10개 정도의 빗살처럼 나란하게 박고 위에 손잡이를 가로 대었다. 또 토막나무에 대각이 되게 앞으로 긴 나무를 박고 여기에 붓줄을 매어 소의 멍에와 연결시켜 소가 끌도록 하였다. ·나래 : 논·밭을 판판하게 고르는 농기구의 일종인데 나래는 전체 모양이 써레와 비슷하나 써레발이 엷은 대신에 한 개나 혹은 2~3개의 나무 판자를 대었다. 나래는 몸을 이루는 나무 판자 아래에 쇠날을 대었거나 함석 판 아래에 쇠날을 댄 것도 있다. 나래는 소가 끌어 당기어 작업을 하며 사람 10명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다. [2] 탈곡(脫穀) 벼나 보리의 알곡을 떨어내는 작업을 탈곡이라고 한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벼훅이'를 가지고 벼 이삭을 하나씩 훅어내는 작업인데 이것은 흔히 부녀자들이 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벼훅이'로는 대량의 탈곡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체력이 건장한 남자들이 '태질'이나 '도리깨질'로써 작업 능력을 올렸다. (1) 태질 태질이라는 것은 개상에 곡식단을 매어 쳐서 곡식을 떨어지게 하는 작업이다. 태질할 때 쓰이는 '개상'은 굵은 나무 도막이나 절구통 따위를 쓰기도 하고 서까래 같은 통나무 5~6개를 나란히 가로대어 엮어 다리를 붙여 사용하기도 하며 가장이 진 나무에 넓적한 돌을 엮어 사용하기도 한다. (2) 도리깨질 도리깨는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서 알갱이를 떨어뜨리는 데에 사용하는 농기구인데, 한자어로는 연가(連枷)라고도 한다. 흔히 보리·밀·콩·녹두·팥·조·메밀 등의 타작에 도리깨질을 하였다. 도리깨의 구조는 '장치', '도리깨 아들', '꼭두각시'등으로 나누는 지는데 '장치'는 기름한 막대기나 대나무를 사용하며 '도리깨아들'은 닻나무와 물푸레나무 같은 단단하고 질긴 회초리 3~4개를 엮어서 장치를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고 꼭지를 꿰어 '도리깨 아들'을 연결한다. 농부들이 도리깨 장치를 번쩍 들었다 내리는 순간에 '도리깨 아들'은 '꼭두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360°의 회전을 하면서 땅 위에 놓인 곡식단을 내리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동작을 '도리깨질'이라고 한다. (3) 고무래와 넝가래 탈곡된 알곡식을 굵어 모으거나 또는 쌀인 곡식을 헤쳐 퍼는 작업에는 고무래와 넝가래가 쓰인다. 고무래는 널빤지 에 구멍을 뚫고 길쭉한 손잡이 막대를 박아 만든 T자형의 농기구이며, 넝가래는 두터운 판자를 삼 모양으로 깎아 만든 농기구인데 가벼워서 곡식 따위를 퍼 담거나 굵어 모을 때에 사용했다. 그리고 탈곡한 낱알에 섞인 흙이나 티끌 따위는 바람의 힘을 빌어 날려 보내고 깨끗한 알곡만 섬이나 가마니에 담아 보관하였으며 바람이 불지 않는 날끼에는 '풍구'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켜 흙과 먼지 따위를 날려 보내고 알곡만 모아 담기도 하였다. [3] 도정작업(搗精 作業) 벼나 보리의 걸쭉질을 벗겨 내어 쌀이나 보리쌀이 되게 하는작업을 도정작업 또는 '방아찝기'라고 한다. 이작업에 사용했던 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색대 색대는 섬이나 가마니 속에 든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찢어서 빼내어 보는 데에 쓰이는 도구인데, 대통이나 쇠통의 끝을 엷비슷하게 깎아서 만든다. 태관(兌管) 또는 간색대라고도 부른다. (2) 매통 매통은 벼그이 걸거를 벗기는 데에 사용하는 나무 매인데 굵은 통나무 두짝이 서루 달는 마구리에 요철(凹凸)로 이를 파고 위쪽의 양쪽에 손잡이 막대를 기워 그것을 쥐고 이리저리 돌려서 갈도록 만든 기구이다. 이러한 구조를 돌로 만든 것이 맷돌이며 나무로 만든 것이 매통이다. 이 매통은 목마(木磨)라고도 부른다. (3) 절 구 절구는 곡식 따우이를 넣고 절구공이나 돌공이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서 찢게 된 속이 무룩한 기구인데, 통나무나 돌 등으로 속을 우묵하게 파내어 만든다. 이 절구를 구마(臼磨)라고도 부르며, 절구질하는 데에 쓰이는 절구공이는 단단한 참나무, 밤나무, 박달나무등으로 길쭉하고 가운데가 잘록한 장구통 모양처럼 깎아 만들며 돌공이는 화강석이나 오석 등의 단단한 돌을 찼막한 원기둥 모양으로 깎아 구멍을 뚫어 나무 손잡이를 박아서 사용한다. (4) 디딜방아 디딜방아는 발로 디디어 곡식을 찢거나 빨는 데에 쓰는 방아인데 매통이나 절구질보다 훨씬 능률적인 도정 기구이다. 'Y'자 모양의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두 갈래진 다른 양글을 발판으로 하고 바로 그 앞에

는 빗장을 깨어 발판을 디딤으로써 공이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공이 아래에는 방아 확을 파 놓고 거기에 곡식을 넣어 찼어 낸다. 이 디딜방아를 답구(踏臼)라고도 부른다. (5) 연자방아 연자 방아는 '연자매'라고도 하는데, 말이나 소의 힘을 이용하여 둥글고 판만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얹혀진 것을 끌고 빙빙 돌게 만든 거상다. 여기에다 벼나 보리를 찼으며 밀을 빨기도 하는데, 원시적인 도정기구 중에서는 가장 발달된 능률적인 기구에 속한다. (6) 풍구 풍구는 탈곡한 후에 품과 먼지를 날려 보내거나 또는 방아를 찼은 후에 왕겨나 걸썩질을 날려 보내고 알곡을 가려내는 데에 쓰이는 기구이다. 구조는 큰 북처럼 생긴 속에 여러개의 깃이 달린 바퀴가 있어 이것을 돌리면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풍구를 풍기(風箕)라고도 한다. 2. 양축(養畜) 옛날, 우리 선인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양축에 힘을 기울였다. 오늘과 같은 대규모의 축산업은 없었지만 농가에는 거의 집집마다 가축을 길러 자급자족의 양축이 이루어졌고 그 사료는 농사에서 얻은 부산물이나 음식찌꺼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양축에 사용하던 기구들은 다음과 같았다. [1] 가축 사육(家畜飼育)기구 옛날부터 농가에서는 육축(六畜)이라 하여 소·말·돼지·양·닭·개 따위를 가축으로 길러 왔다. 따라서 집집마다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마련하고 가축번식에 힘을 썼다. (1) 소·말 기르기 소와 말은 농가에 가장 소중한 가축이며 또한 소중한 재산이었다. 특히 소는 농사에 필수적인 작업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농가에는 외양간을 마련하고 소 기르기에 전력하였다. ·구유 : 마소의 먹이를 담아 주는 나무 통을 구유라 한다. 마소는 초식 동물이므로 마른 풀, 볏짚, 쌀겨, 보릿겨, 곡식, 뜯물 따위의 거친 사료를 다량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커다란 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꼴'이라고하여 야생하는 잡초를 낫으로 베어다가 먹이거나 또는 소를 직접 풀밭에 끌고 나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도 한다. ·작두 : 작두는 짚이나 콩깍지, 또는 풀 따위를 사료로 스기 위해 잘게 썰는 연장이다. 기름하고 두툼한 나무 토막 위에 짤막한 쇠기둥 2개를 세우고 그 틈에 길고 큰 칼날끝을 끼워 꺾고 날 끝에 박힌 나무 자루를 발로 디디면서 썰도록 되어 있다. 마소를 기르는 농가에는 필수적인 연장이다. (2) 양계(養鷄) 닭은 큰 부담없이 서 쉽게 기을 수 있는 흔한 가축이므로 농가에는 어느 집이나 닭 몇 마리씩은 사육하였다. 양계에 사용하던 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동지: 닭이 알을 낳거나 또는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데 쓰도록 만든 동지를 알동지라고 하며 일명 '알동우리'라고도 한다. 알동지를 짚으로 초가 지붕의 용마루에 덮는 용마루처럼 엮어서 새끼줄로 닭이 오르기 좋은 곳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닭이 동지 속에 들어가 알을 낳고 밖으로 나온다. ·어리 : 어리는 병아리 따위를 가두어 기르기 위하여 싸리나무 같은 가느다란 나무로 체를 엮어서 둥글게 만든 것이다. 이 어리를 땅 바닥에 놓고 그 안에 병아리를 넣어 가두고 물과 모이를 넣어 준다. ·동우리 : 짚이나 대나무, 싸리나무따위로 엮어 만든 새장 비슷한 물건인데 네귀에 새끼줄을 달아 추녀 밑이나 서까래 밑에다 매어 단다. 그 안에는 병아리를 넣어서 쥐나 고양이, 또는 개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달아 맨다. ·바자: 바자는 대나무, 갈대, 수수강 등으로 발처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쓰는 것인데 '파자(把子·芭子)'라고도 부른다. 농촌에서는 닭을 놓아 먹이는 일이 보통이었으므로 채소밭에 닭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자를 둘러쳤다. 3. 어업(漁業) 아산만 연안에서는 어촌이 형성되어 여러 가지 해산물이 풍성하였고 하천과 소류지에서도 여러 가지 어패류가 잡혔다. 조선 왕조의 순조 19년(1819년)에 간행된 '신정아주지(新定牙州誌)'의 '풍토물산(風土物産)'조를 보면 당포(唐浦:당개)에서는 황어(黃魚), 세미어(細尾魚), 공진(貢津:공세리)에서는 송어(秀魚), 장자못(長者池)에서는 잉어(鯉魚), 오린어(烏鱗魚)등이 많이 잡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929년에 간행된 '조선 한여 승람(朝鮮 輿勝覽)에는 마어(麻魚), 민어(民魚), 위어(葦魚), 황어(黃魚), 뱀어(白魚), 세미어(細尾魚), 잉어(鯉魚), 오린어(烏鱗魚), 노어 등이 많이 잡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물고기들은 다른 지방에도 흔히 잇는 것이지만은 오직 아산만에서만 자라던 '강다리'라는생선이 있었다. 생선 가시가 매우 연하고맛이 담백하여 여름철 농번기의 일터에서 밥반찬으로 필수적이었던 이 물고기는 아산만 방조제 공사 이래로 생태계가 파괴된 까닭에 완전히 멸종되어 지금은 '강다리'를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아산만은 온양·아산 지방 주민에게 온갖 어패류와 소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소금장수, 간수장수, 생선장수 등 남부 여대한 행상

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해산물을 팔았다. 깊숙한 두메 산골에 까지 이고 진 장사아치들이 '새우젓 사오', '강다리 사오', '간수 사오' 하면서 구성지게 외쳐 대던 소리도 지금은 들을 수 없다. [1] 어구(漁具) 어구는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제반 도구를 말한다. 온양·아산 지방은 아산만·삼교천·곡교천 등의 만과 하천이 있고 크고 작은 호수가 많아 어업(漁業)도 비교적 발전하였던 고장이다. 우리 고장에 전래하였던 어구(漁具)는 다음과 같다. (1) 어선(漁船)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데에는 어선(漁船)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규모가 작은 '야거리'와 규모가 큰 '중선(重船)'이 있으며 주낙으로 낚시질을 할 때에는 '마상이'를 타고 고기를 낚아 올린다. ·야거리 : 돛대가 하나 달린 작은 배인데, 이 배는 소규모의 고기잡이에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태워 물을 건너 주는데 쓰인다. ·중선(重船) : 규모가 큰 고기잡이 배를 중선이라고 하는데 돛대가 두 개이다. 이 배의 중심부에는 '뚝'이 있는데 이것은 띠나 부들 같은 것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 지붕을 만들어 비가 내릴 적에 물건을 넣거나 별을 가리거나 바람을 막는 데에 이용하며, 일명 '초둔'이라고 부른다. 돛대가 두 개 있는 배를 '두대박이'라고 부르는데 배의 머리 쪽에 있는 돛대를 '이물대'라고 부르고, 배의 꼬리쪽에 있는 돛대를 '고물대'라고한다. 야거리나 중선에 어망을 싣고 나가 고기를 잡아 올린다. 어망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후릿그물이다. (2) 어망(漁網) ·후릿그물 : 후릿그물은 큰 어망(漁網)의 하나인데 바다나 큰 강물에 그물을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그 두 끝을 끌어 당기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후릿그물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에다 싣고 바다나 강물에 넓게 펼쳐 놓은 다음 힘센 어부들이 그물의 양쪽 끝을 끌어 올린다.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후릿그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투망(投網) : 투망(投網)을 '뺨이'라고도 하는데 원추형(圓錐形)으로 생긴 그물이다. 상부에 몇 발의 버리가 있고 하부에는 낚, 또는 쇠로 된 추가 달려 있다. 버리를 잡고 물속으로 퍼서 던지면 착 퍼지고 그물이 바닥에 닿은 후 천천히 버리를 당겨서 그물을 죄어 속에 든 고기를 건져 올린다. 투망은 깊지 않은 강이나 호수에서 흔히 사용한다. ·반 두 : 반두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일종인데 두 끝에 막대기를 대어 두 사람이 맞잡고 고기를 몰아 잡도록 되어 있다. 좀더 작게 만든 반두는 한 사람이 양손으로 막대를 쥐고 고기를 몰아 잡는다. (3) 낚시 ·주낙 : 주낙은 '줄낚시'의 준말인데 낚싯줄에 여러개의 낚시를 띄엄띄엄 달아 자세에 감아서 물살에따라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하여 물고기를 낚는다. 이 주낙을 '연승(蓮繩)'이라고도 부르며 주낙으로 고기를 낚으려면 주낙배를 타고 깊은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주낙배 : 주낙으로 고기를 잡을 때 타는 배를 '주낙배', '매생이', 또는 '마상이'라고 부른다. 이 마상이라고 하는배는 노를 젓게 된 작은 배인데, 어던 것은 통나무를 깎아 파서 만든 아주 작은 배도 있었다. 마상이의 부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이물: 배의 머리 부분. 선두(船頭) 또는 선수(船首)라고도 부른다. 이물간 : 배의 이물 쪽의 간살을 이물간이라곤 부른다. 고물 : 배의 돛 쪽. 선미(船尾)라고도 한다. 고물간(허릿간) : 배의 고물 쪽의 허릿간 ·삼봉낚시 : 삼봉(三峰)낚시는 세 갈래의 갈고리가 있는 큰 낚시인데 강바닥에 가라 앉히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걸리게 되어 있다. (4) 기타 어구(漁具) ·작살 : 작살은 짐승이나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인데 막대기 끝에 몇 갈래로 갈라진 예리한 쇠를 박은 것이다. 비교적 큰 고기를 찔러 잡을 때 사용하며 고래잡이에는 대포식 작살을 사용한다. ·통발 : 통발은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가지 등목로 엮어서 통(筒)처럼 만든 고기잡이에 쓰는 도구이다. 아가리에 작은 발을 달아서 그 날카로운 끝이 가운데로 물리게 하여 들어간 고기가 거슬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쪽 끝은 마음대로 묶고 풀게 되어 있어 안에 든 고기를 잡아내게 되었다. ·어항(魚缸): 어항은 물고기를 기르는 데 쓰는 유리 등으로 만든 투명한 항아리를 지칭하기도 하나, 여기서 말하는 어항은 물고기를 잡는 데에 사용하는 그릇을 뜻한다. 그 생김새와 원리는 '통발'과 흡사한데, 다만 투명한 유리로 만든 것이 다를 뿐이다. ·보쌈 :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큼직한 대야나 양푼 같은 그릇의 바닥에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그 뒤에 보자기를 씌우고 보자기에다 물고기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중심에 한 개를 뚫어서 냇물 속에 넣어 둔다. 이것을 보쌈이라고 하는데 몇시간이 지난후에 조용히 보쌈을 건져 올려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를 꺼낸다. ·종다래씨 : 다래끼보다 작은 것이 종다래끼인데, 짚이나 싸리로 만든 작은 바구니이다.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거

나 멜빵을 달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잡은 물고기를 여기에 담는다. ·사내끼 : 사내끼는 물고기를 잡을 때 물에 뜬 고기를 건져내는 기구이다. 긴 자루 끝에 철사나 끈으로 망(網)처럼 얹어 놓아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면 재빠르게 건져낸다. 4. 운수(運輸) 우리 선인들의 운반 방법은 인력(人力)으로 등에 저 나르는 '지게'가 가장 오래된 원시적 수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의 힘을 이용하여 수레에 싣고 끌고 가게 하거나, 소의 등에 짐을 싣어 나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말의 체력과 주력(走力)을 이용하여 타고 달리기도 하고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게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는 뗏목이나 배를 띄워 사람을 건네주기도 하고 물건을 싣어 나르기도 하였다. 배는 통나무를 각아 한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마상이' 좀 더 규모가 큰 거룻 배 따위가 있어 인력으로 노를 젓거나 사잇대질을 하여 운항하다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돛단배가 발명되었다. 돛이 하나인 '외대박이'와 돛이 두 개인 '두대박이'등의 큰 배가 이용되었다. [1] 지게 지게는 짐을 지고 다니는 한국 특유의 운반기구이다. 곧은 나무에 가지가 비스듬히 옆으로 뚫은 소나무 2개를 갈라 위는 좁고 아래는 약간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사이에 나무나 장식을 가로질러 사개를 맞추고 등이 달을 곳은 짚을 엮어 통통히 대고 아래 위로 질빵을 2개 걸어 등에 지고 다니도록 되어 있다. 섬이나 가마니에 담은 물건, 또는 나무 토막 따위는 지게 위에 얹어 지고 다닐 수 있고, 그밖에 작은 덩어리로 된 물건은 포장하지 않은 채 지게 위에다 발채(바소쿠리)를 얹고 그 위에 물건을 담아 지고 다닌다. 지게의 부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등태 지게의 등이 달는 곳에 두툼하게 짚을 엮어 댄 것인데 짐을 졌을 때에 등이 배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2) 동발 지게의 뒷 쪽으로 뻗은 가지인데 '지겟다리'라고도 하며 여기에 짐을 얹어 지고 다닌다. (3) 질빵(멜빵) 짚으로 굵게 딸아서 지게 발목으로부터 지게 머리 부분까지 연결하여 지겟꾼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 된 끈 (4) 발채 (바소쿠리) 지게에 얹어서 짐을 싣는 제구인데, 찌리나 대오리로 둥글 넓적하게 조개 모양으로 걸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작대기 지게에 짐을 얹어 땅 위에 받쳐 세울 때에 쓰는 기다란 막대기인데 아래 끝은 뾰족하게 깎아 땅에 박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끝은 'Y'자 모양으로 갈라져서 지게의 가로 막대에 걸어 받치도록 되어 있다. [2] 끌 개 지게로는 질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먼 곳까지 비교적 빠르고 쉽게 운반하기 위하여 인력(人力)으로 끌고 갈 수 있게 고안한 기구를 '끌개'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판(驅板)과 썰매이다. (1) 구판(驅板) 크고 무거운 돌이나 목재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땅바닥에 둥근 통나무를 적당한 간격으로 깔아 놓고 그 위에 두터운 판자로 'U'자 모양의 '구판'을 얹은 다음 구판 위에 짐을 싣어 인력으로 끌어 당긴다. 이 때에 땅바닥에 깔린 둥근 통나무가 굴러서 작은 힘으로도 중량급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 이 구판은 흔히 돌공장이나 성을 쌓을 때에 많이 이용되었다. (2) 썰매(꺽적지) '썰매'의 어원(語源)은 '설마(雪馬)'가 변한 말이라고하며 방언(方言)으로 '꺽적지'라고 한다. 우리 고어(古語)로는 '나막신'을 '꺽적'이라 하고 굵이 놓은 나막신을 '꺽적지'라고 하는데 이 썰매의 생김새가 굵이 놓은 나막신과 비슷하므로 '꺽적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썰매는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놀이 기구를 말하기도 하지만 운반 수단으로 쓰이는 썰매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모양은 작은 배(舟)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물건을 싣고 눈이 쌓인 길 위나 얼음판을 끌고 가는 기구이다. 그러나 평지 또는 내리막에서는 편리한 반면에 오르막에서 오히려 사용하기 힘든 도구였다. [3] 수레 수레도 '끌개'의 일종으로 사람의 힘이나 마소(牛馬)의 힘을 이용하는 도구인데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이 '끌개'와 다른 점이다. (1) 동차(童車) 어린 아이를 태워 끌고 다니는 작은 수레인데 오늘날의 유모차(乳母車)와 같은 용도를 지녔다. 이 동차는 규모가 작은 수레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놀이감으로 끌고 다니면서 즐겼고 이보다 약간 크게 만든 동차로는 소규모의 돌덩어리나 쇳덩이를 싣어 나르기도 하였다. (2) 발차(發車) 무거운 돌 따위를 싣어 사람이 끌고 가도록 만든 수레인데 채석장(採石場)이나 석물공장(石物工場) 또는 축성 공사(築城工事)에서 가까운 거리에 운반할 때 쓰는 기구이다. (3) 평차(平車) 발차(發車)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짐을 싣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끌고 밀어 비교적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도 있는 손수레이다. 이 평차는 1960년대까지도 도시에서 김꾼들이 짐을 싣어 나르는 '짐수레'로 이용하였는데 산업화·기계화 이후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 (4) 우차(牛車) 소가 끄는 수레이기 때문에 '우차(牛車)'라고 하며

말이 끄는 것은 '마차(馬車)'라고 한다. 구조는 평차와 같으나 규모가 약간 크다 수레바퀴 앞쪽에서 멍에에 이르는 기다란 두 개의 나무를 '원(轆)'이라고 하며 이 두 개의 원(轆) 끝에 가로 막아 댄 나무를 '멍에'라고 하는데 이 멍에를 '액'이라고도 한다. 이 액을 소의 목 위에 얹어 끈으로 맨 다음 끌고 가도록 한다. [4] 농우(農牛) 농사 일에 부리는 소를 농우라고 한다. 다리는 짧은 편이나 몸이 살지고 초식성(草食性)이며, 참을성이 강하고 힘이 세어 논밭을 갈고 수레를 끌며 등에 무거운 짐을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소의 힘으로달구지나 수레를 글게 하기도 하지만 길이 좁고 기복이 심한 산촌에서는 소의 등에다 짐을 실었다. (1) 옹구 옹구는 두 엄, 무, 호박, 배추, 감자 등을 실어 나르는 농기구인데 일명 '망구'라고도 부른다. 짐을 실을 때에는 옹구의 눈과 눈 사이에 막대를 질러 두었다가 부릴 때에 막대를 빼면 옹구 안의 물체가 떨어져 나온다. 다른 하나는 조른 끈을 풀어서 짐을 부리는 것이 있다. (2) 발채 발채는 말이나 소의 길마 우에 얹어서 버나 보릿단 등을 운반하는 데에 쓰이는 농구인데 우리 충남 지방에서는 이것을 '발구'라고 부른다. 형태는 둥근 나무로 11자 모양으로 짜서 바깥 쪽으로는 새끼줄을 매었다. 몸체의양쪽 틀을 의지하여 사방으로 각각 6~10가닥의 새끼줄을 매고 늘어진 끝을 서로 엮어 짜 바닥을 만든다. (3) 거지개 소나 말의등에 얹어서 무거운 나무나 돌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운반구를 거지개라 한다. 생김새는 지게와 비슷하며 길이는 60cm 내외로 등발이 짧고 세장도 둘 뿐이다. 거지개는 두 짝을 함께 상요하며 길마 양편에 하나씩 엮고 새끼로 묶어서 쓴다. 한번에 500~600kg의짐을 싣는다. [5] 선박(船舶) 아산 지방은 하천과 호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호아해 바다에 이어지는 아산만이 있어 어업이 상당히 활발했으며 아울러 어선(漁船)과상선(商船)이 아산만 연안에 가득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주면 공세리에 조창(漕倉)이있었기 때문에 호소 지방의 세곡(稅穀)을 한양(漢陽)으로 운반하는 거대한 조운선(漕運船)이 연락 부절이었다. 그리고 아산군 지역에서 서쪽으로 당진군 지역으로 가기 위해 삼교천을 배로 건너 갔으며 북쪽으로는 배를 이용하여 아산만을 건너 평택군 지역으로 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산군 관내의 중앙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흐르는 국교천이 홍수로 넘치는 하절기에는 교통의 요소에 거룻배를 마련해 두고 사공을 배치하여 왕래하는 나그네나 통학생을 태워 건너가게 하였다. (1) 거루 거루는 '거룻배'라고도 하는데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이다. 주로 설비가 불완전한 항구에서 큰 배의 짐을 나르는 데에 사용하며 또는 나루터에서 길손을 태워 건너가게 하는 데에도 쓰인다. 일명 소선(小船), 또는 거도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부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노(櫓) : 손으로 저어 배를 나아가게 하는 나무로 된 도구인데 물 속에 들어가는 깃죽은 납작하며 손잡이 죽은 가늘게 만든다. 노의 손잡이 쪽에 가느다란 나무 도막을 가로 박은 것을 '노손'이라 한다. ·상앗대 : 물가에서 배를 떼거나 또는 물이 얕은 곳에서 배를 밀어 갈때에 쓰는 장대 ·창막이 : 거룻배나 돛배 같은 목조선(木造船)의 선창(船艙)에 간막이로 가로 박은 나무 (2) 돛배 돛배는 '돛단배', '범선(帆船)'이라고도 부르는데 돛에 달는 풍력(風力)에 의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돛을 달기 위해 배에다 세운 기둥을 '돛대' 또는 '짐대', '범장(帆檣)', '장간'등으로 부르며 돛대가 하나인 작은 돛배를 '외대박이'라고 한다. 돛배의 부분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키 :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기구인데, 직각 삼각형의 큰 널조각에 위는 자루를 달아 고물에 박고 아래의 주걱 모양의 넓은 쪽은 모세비로 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자루를 틀어 방향을 조종한다. 키는 '타(舵)' 또는 '방향타(方向舵)'라고도 부르며 배의 뒤 쪽에 달려 있다. ·닻 : 배가 다른 곳으로 떠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기구인데 갈고리가 달린 쇠나 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밧줄이나 쇠사슬에 매어 물 속으로 던지며 흙바닥에 박혀서 배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돛 : 풍력(風力)을 이용하여 배의 추진에 이용하기 위해 돛대에 다는넓은 천인데 바람을 따라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으며 돛대에 달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어 있다. ·마루줄(이여줄) : 배의 돛을 달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줄 ·용총줄 : 돛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하여 돛대에 달아 놓은 줄 ·활 대 : 돛 위에 가로 댄 나무인데 돛의 꼭대에 댄 것을 '상활'이라 하고 맨 아래에 댄 것을 '하활'이라고 한다. (3) 만장이 만장이는 큰 목조선(木造船)의 하나인데 뱃머리가 뾰족하게 생기고 돛대가 두 개 발린 '두대박이'이다. 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싣고 먼 바다의 풍랑에도 견딜 수 있으며 돛이 두 개 이므로 속력도 빠르다. 아산 인주면 공세리의 조창(漕倉)에서 사용하던 조운

선(漕運船)은 모두 이 '만장이'였고 복상하여 강화도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양(漢陽)에 까지 운송하였다. 5. 공장(工匠) 공장(工匠)은 오늘의 기능공에 해당하는 기술자인데 이들은 '장인바치'라고 하여 천하게 여기는 인습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기술이 크게 발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풍토에서도 전통 공예의 맥은 면면히 이어 왔고 도공(陶工), 야공(冶工), 목공(木工)등이 대표적이었다. [1] 옹기장(甕器匠) 옹기는 질그릇과 오지 그릇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금의 온양시 권곡동 일대와 모종동 일원에서 옹기에 쓰이는 좋은 흙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옹기 가마를 설치하고 옹기장(甕器匠)들이 옹기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온양 장터에는 옹기를 파는 '옹기전' 또는 '옹기점'이 곳곳에 있었으며 옹기 장수들이 지게에 옹기를 높이 쌓아 지고 다니면서 파는 등짐 장수들이 많았다. 옹기의 주된 원료는 고운 진흙인데 이것을 물구덩이에 넣고 긴 막대로 이리저리 휘어져 가라앉은 침전분의 윗부분으로 그릇을 빚는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그대로 구워낸 것을 '토기(土器)', '와기(瓦器)' 또는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면이 거칠어 바람이 통하고 물을 부으면 조금씩 새어나오는 단점이 있다. 질그릇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잿물'이라는 약물을 거죽에 발라 구워낸 그릇을 '오지그릇'이라고 한다. '잿물'이라는 약물은 산에서 캐낸 약토(藥土)에 나무를 태운 재를 섞어 만든 것인데, 이것을 발라 구워낸 오지 그릇은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물이 새지 않고 적당하게 숨을 쉬기 때문에 그릇에 담은 음식물이 쉬거나 썩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들여온 '광명단'이라는 유약(釉藥)이 보급되면서 우리 전통의 '잿물'은 자취를 감추었다. 화공약품에 속하는 이 유약을 사용한 옹기는 표면이 유리알처럼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붉은 색이 곱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그릇은 인체에 해로운 납이 들어 있고 그릇이 숨을 쉬지 못하여 음식이 상하기 쉽다. 우리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잿물을 알맞게 발라 잘 구워낸 독은 3년을 가도 드 속에 담아둔 고추장에 곰팡이가 피지 않으며 간장도 된장은 묵을수록 맛이난다. 그리고 김치독으로 쓰이는 좋은 옹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자연 공급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고 감칠맛이 난다고 한다. 옹기의 유형을 보면 대독, 술독, 소주고리, 새우젓독, 초병, 방구리, 항아리, 봉치시루, 콩나물 동이, 자배기, 서래기, 쪽배기, 옹배기, 약탕관, 앵병, 동이, 버치, 소래, 방통이, 두병 등 다양하고도 토속적인 형태와 명칭을 지니고 있다. 옹기를 흙으로 빚어 가마에 구어내는 과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타래 기법(技法) 옹기를 빚어 만드는 기법에는 '둥글타래' 기법과 '첫바퀴타래' 기법이 있다. 이 때에 사용하는 기구로 녹로대인데, 여기에서 찰흙덩이를 올려 놓고 녹로대의 중심부에 달린 도차(陶車: 물레)를 발로 돌리면서 옹기를 빚어 낸다. 찰흙을 마치 흰떡가래처럼 길게 만들어 도차(물레)를 회전시키면서 총총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면서 그릇 모양을 빚는 것이 '둥글타래' 기법이며, 흙덩이를 바닥에 메쳐서 널빤지 처럼 몸체를 만드는 '판장질'에 이어서 도차(물레)에다가 돌려가며 그릇의 형태를 빚어내는 것이 '첫바퀴 타래' 기법이다. (2) 도화(陶畵) 녹로대에서 빚어낸 찰흙 그릇을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그것에다 그림이나 무늬 따위를 그려 넣는 것을 도화(陶畵)라고 한다. 도화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그림이나 무늬를 파내고 그곳에 색깔이 다른 찰흙을 메워서 완성하는 상감 기법이 있고 산화철이나 그밖의 색소를 가지고 도안을 붓으로 그려 넣는 방법이 있다. (3) 유약(釉藥) 칠하기 완전히 건조된 찰흙 그릇의 표면에다 유약을 칠한다. 유약을 '잿물'이라고도 하는데, 소나무를 태운 재와 철분이 많은 약토(藥土)를 섞어 만든다. 이것을 발라 구워낸 옹기는 단단하고 광택이 있게 된다. (4) 구워내기 유약을 바른 흙 그릇을 뽕통가마에서 일주일간 구워진다. 가마는 숯, 기와, 벽돌, 질그릇 따위를 구워내는 시설인데 아궁이와 굴뚝이 있다. 흙으로 빚어 건조시킨 그릇들을 이 뽕통가마 속에 정성껏 조심스레 넣은 다음, 도공들은 목욕을 하고 좋은 날을 가려 모든 잡념을 버리고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불질'을 한다. 불질은 가마에 부름= 때는 것인데, 아궁이에 첫불을 넣는 것이 '피웁불'이며 불길을 더욱 강하게 돋우는 것이 '덜김불'이다. 아궁이에서 타는 불길로는 가마속에 든 옹기들이 골고루 열을 받지 못하므로 가마의 윗부분에 뚫어 놓은 천창(天窓)구멍으로 나무토막을 넣어서 골고루 태워 옹기를 굽는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불을 지펴 구워진 옹기는 불이 꺼지고 완전히 식은 뒤에 가마에서 꺼내게 된다. [2] 수철장(水鐵匠) 수철(水鐵)이란, 무쇠를 말하며 무쇠로 솥이나 무쇠 두구를 주조(鑄造)하는

기술자를 수철장이라고 한다. 우리 고장에서는 석화산에서 망경대에 이르는 산간에서 무쇠와 금불이가 많이 산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처의 지명으로 '쇠일'·'금곡(金谷)'·'수철리(水鐵里)'등의명칭이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설화산 채석장에서 산출된 화강석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인들이 설화산에 금광을 개발하여 많은 황금을 채굴해 간 사실을 보아도 그곳 지명의 유래가 근거 있음을 알 수 있다. (1) 수철(水鐵) 수철은 1.7~7%의 탄소가 들어 있고 그밖에 규소, 망간, 인(燐)등이 함유되어 있는 철합금으로 빛이 검고 바탕이연하여 강철보다 잘 녹기 때문에 주물(鑄物)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쇠이다. 수철(무쇠)은 산속에 묻혀 있는 철광석을 캐다가 도가니(용광로)에 넣고 석탄불에 풀무로 바람을 넣어 고열로 녹여 빼낸 것이다. 철광석은 높은 온도에서 철분과 돌덩이가 녹아 비중에 따라 위 아래로 분리되는데 이 때에 녹은 쇳물을 빼낸 것이 곧 수철이다. 옛날에는 쇠불이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특별히 철광석이 산출되는 지역에는 국법으로 수철장들을 영주시켜 쇠불이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수철소(水鐵所)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광석을 캐거나 주물을 제조하듯 천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모여 살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수철광(水鐵鑛)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철계(水鐵契)를 조직하여 나라에 무쇠를 공동으로 바치는 제도가 있었다. (2) 주조(鑄造) 무쇠는 비교적 잘 녹기 때문에 주조하기 쉽고 잘 닳지 않으며 각이거나 갈리지 않으므로 솥, 철관, 보습 등을 제좌는 재료로 쓰인다. 도가니에 무쇠 조각을 넣거나 철광석을 넣고 석탄불을 피워 풀무질을 하면 무쇠가 녹아 흘러 나온다. 이 때에 무쇠 바가지로 쇳물을 받아 거꾸집에 부어 식히면 주물이 완성된다. 거꾸집은 부어서 만드는 물건의 모형(型)을 말한다. [3] 야장(冶匠) (1) 단야(鍛冶) 단야(鍛冶)를 단련(鍛鍊) 또는 연단(鍊鍛)이라고도 하는데 쇠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 단단한 쇠로 만드는 작업이다. 철광석을 녹여 빼낸 수철은 단단하기도 하나 쉽게 금이 가거나 깨어지기 때문에 주물 이외의 칼이나 낫, 도끼 따위의 연모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쉽게 부러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강철을 만드는 작업이 곧 단야이다. 무쇠 덩이를 석탄 불 속에 넣어 풀무질을 하면 벌겋게 달구어 진다. 이것을 부집게로 집어 내어 쇠모루 위에 놓고 힘센 장정들이 쇠메로 내리친다. 수없이 반복하여 쇠메질을 하다가 식으면 다시 불에 달구어 쇠메질을 다시 한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 할수록 무쇠가 함유하고 있는 탄소, 규고, 망간, 인 등의성분이 없어지고 강철이 된다 이러한 단야(鍛冶)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강철은 불에 잘 녹지 않고 강하면서도 탄력성이 좋으며 불에 달구면 자유자재로 신축성이 좋아서 대장간에서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만들어 낸다. (2) 대장간 대장간은 풀무를 차려 놓고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인데 옛날에는 시골 장터나 마을 단위로 반드시 대장간이 있어 무딘 농기구나 각종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버리기도 하고 새로 연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대장장이는 오랜 숙련을 통해 담금질로 쇠의 강도(強度)나 성질을 조절하는 기술자였다.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도구로는 풀무, 모루, 정, 쇠메, 집게, 대갈마치, 솥돌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했다. 그리고 대장간이 없는 마을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면서 칼, 낫, 도끼, 정 따위의 기구를 날카롭게 버리는 떠돌이 대장장이도 있었다. 자급자족(自給自足)하던 옛날에는 대장간이 농어촌의 필수적인 존재였으나 공업화·기계화·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장간도 자취를 감추었다. ·풀무 :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풀무라고 하는데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거나 쇳물을 녹여 땀질을 하는 데에 쓰인다.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골풀무도 있었으나 대개는 손으로 손잡이를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손풀무가 흔히 사용되었다. ·모루 : 모루는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 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인데 흔히 '쇠모루' 또는 '철침(鐵砧)'이라고도 부른다. ·집게 : 손으로 직접 쥐기 어려운 물건을 지브는데에 쓰는 기구를 집게라고 하는데 대장간에서 가공물(加工物)들을 노(爐)에서 꺼냈다 넣었다 하는 집레를 '부집게'라고 한다. ·쇠메 : 쇠메는 흔히 '쇠망치'로 불리우는데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거나 또는 석수장이 돌을 깨뜨릴 때 또는 못이나 말뚝을 박을 때에 쓰이는 도구이다. ·정 : 정은 대장간에서 쇠불이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석수장이 돌에 구멍을 뚫을 때 그리고 돌을 쪼아내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는 쇠로 만든 연장이다. 끝이 뾰족한데 원추형 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금속공용(金屬工用)과 석공용(石工用)의 두 종류가 있다. [4] 목공(木工) 우리의 저통 가옥과 공예품은 거의 대부분 목재

(木製)였기 때문에 목공 기술이 발달하였고 따라서 목공예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 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미장(泥匠) 공사 기술도 발전하여 훌륭한 미장공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 선인들이 사용한 목공예 도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목공예 도구는 그 용도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 자르거나 깎는 도구, 흠을 파거나 구멍을 뚫는 도구, 두드리는 도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 · 승(繩) : 승(繩)은 '승묵(繩墨)'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우리말로 '먹줄'이라고 한다. 이 먹줄은 먹통에 달려 목재에 직선을 치는 데에 쓰는 끈을 말한다. '먹통'은 나무를 후벼 파서 두 개의 그릇 모양으로 만들고 한 쪽엔 먹물에 적신 솜을 넣어 두고 다른 쪽에 먹줄을 감아 놓아 그 줄이 먹그릇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먹줄을 뽑아 내어 목재나 선재에 직선을 치고 그것을 자르거나 다듬는 기준선으로 삼는다. · 구(矩) : 구(矩)는 '곱자' 또는 '곡척(曲尺)'이라고 하는데 'ㄱ'자 모양으로 90도 각도로 만든 자를 말하며 쇠나 나무로 만든다. 이 구(矩)에는 눈금이 새겨져 있어서 길이의 첫수를 재는 데 사용하며 90도의 직각을 그리거나 재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목공예 작업에 필수적인 도구의 하나이다. · 규(規) : 규(規)는 오늘날의 컴퍼스에 해당하는 기구인데, '원척(圓尺)'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이용하여 원(圓)을 그리거나, 원형(圓形)을 고치는 작업을 한다. 오늘날의 제도(製圖)에 쓰이는 규(規)는 분도기(分度器)와 컴퍼스 따위를 총칭하는 명칭이다. · 준(準) : 준(準)은 수평과 수직을 측정하는 기구인데, 나무나 쇠로 만들었다. 수평을 보기 위하여는 준(準)을 평면 위에 놓고 주는이 기둥이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수평이 된 평면 위에 준을 놓고 준의 기둥에 맞도록 서을 내리 그러면 수직선이 된다. (2) 자르거나 깎는 도구 · 톱 : 목공예 작업에 필수적인 톱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톱, 거도(鋸刀), 큰톱 등으로 분류된다. 얇은 강철판으로 된 톱양에 날카로운 이가 여럿이 있어 쇠나 나무를 자르는데 사용한다. · 자귀 :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인데 넓적한 쇠날의 뒤쪽에 축을 내고 그 축을 기름한 나무 끝에 끼워 그 중간에 구멍을 뚫고 나무자루를 가로 박은 것이다. 이 자귀보다 규모가 큰 것을 '대자귀' 또는 '큰자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루가 길어서 두 손으로 쥐고 나무를 깎아 낸다. · 까뀌 : 까뀌는 자귀와 비슷하나 규모가 더 작으며 외손으로 쥐고 나무를 깎는 도구이다. 쇠로 만든 날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에 나무로 자루를 만들어 끼워서 나무를 깎기도 하고 까뀌 머리로 못을 박거나 물건을 두드리는 일에 사용한다. · 우비칼 : 우비칼은 '호미칼'이라고도 하는데 생김새는 낫과 비슷하나 날이 타원형으로 굽으러져 있고 자루가 짧막하다. 우묵한 곳을 깎아낼 때 쓰이는 칼이다. · 환 : 환은 '줄'처럼 쓰이는 연장인데 조봇한 쇠조각에 잘게 이를 솟게 내거나, 나무 조각에 상어 껍질로 붙여 만든다. 쇠불이가 아닌 연한 물건을 톱처럼 사용하여 써는 데에 이용한다. 이 환을 '안기려(雁岐)'라고도 부른다. · 대패 : 대패는 주로 나무를 반반하게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인데, 장방형의 작고 단단한 나무 토막에 장방형의 납작한 쇠날을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 빗내리 박고 위 쪽에 손잡이가 가로 양쪽에 나와 있다. 대패의 종류로는 평대패, 외날대패, 쌍날대패, 막대패, 아무리대패, 기대패, 흠대패, 굽은 대패등이 있다. · 변탕 : 변탕은 재목을 깎기 전에 깎아낼 두께를 미리 어림잡기 위하여 한 쪽가를 먼저 깎는 대패이다. 날이 좁고 집의 왼쪽에 네모퉁이 진 것과 두쪽으로 날을 파고 가운데에 네모퉁이 진 것이 있다. (3) 흠을 파거나 구멍을 뚫는 도구 · 끌과 끌망치 : 끌은 나무에 구멍을 파거나 다듬는 데에 쓰는 연장인데 가늘고 긴 쇠의 날을 세워 위에는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망치로 때리어 구멍을 판다. 끌머리를 때리는 망치를 끌망치라고 하는데 쇠망치를 사용하기도 하나 대개는 나무토막에 손잡이를 각아서 쓰며 이것을 '끌방망이'라고도 부른다. · 송곳과 바곳 : 송곳은 종이나 나무, 쇠 등에 구멍을 뚫는데 쓰는 연장으로 끝이 뾰족하고 자루가 있다. 바곳은 옆에 자루가 달린 길쭉한 송곳인데 두터운 종이나 철판, 가죽 따위를 뚫을 때에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에 든 망치로 송곳 머리를 때려 구멍을 뚫는다. · 도래송곳 : 도래송곳은 끝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 끝 부분에서 송곳대까지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 송곳'이라고도 하고 '통송곳'이라고도 부른다. 굽은 자루가 위에 가로 박혀 있어 이 자루를 내리 누르면서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리면 둥근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다. (4) 두드리는 도구 · 메 : 메는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에 쓰는 물건인데 굽고 짧은 나무 토막이나 쇠 토막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긴 자루를 박아서 사용한다. 메를 '종규(

揆)'라고도 부른다. · 노루발 장도리 : 한 쪽 끝은 못을 박는 데에 스고 다른 한 쪽 끝은 넓적하고 돌로 갈라져서 못을 빼는 데에 쓰는 연장을 노루발 장도리라고 부른다. 흔히 '장도리' 또는 '못뽑이'라고도 부른다 (5) 기타 도구 ·방울집게 : 방울집게는 박힌 못을 뽑을 때 쓰는 연장인데 못대가리를 잡는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울집게라고 부른다. ·녹로 : 녹로는 우리말로 '고패'라고 하는데 물건을 놓이 달아 올렸다 내렸다 하기 위해 만든 도로래의 일종이다. [5] 미장(泥匠) 집을 짓거나 고칠 때에 흙이나 회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미장이' 또는 '이장(泥匠)'이라고 하며 '토공(土工)'이라고도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흙받기 흙손질할 때에 이긴 진흙이나 회를 받쳐 드는 제구를 '흙받이' 또는 '흙받기'라고 한다. 너모진 널조각으로 한 복판 밑에 받치어 드는 손잡이가 있어 왼손에 손잡이를 잡고 진흙이나 이긴 회를 받아 들고 오른손으로 흙손질을 한다. (2) 흙손 미장을 할 때 진흙이나 이긴 회를 떠서 바르고 그 거죽을 반반하게 하는 연장을 흙손이라고 하며 그 작업을 '흙손질'이라고 한다. 흙손은 라름하고 얇은 철판 조각으로 한 끝에 자루가 달려 있다. 철판 조각 대신 얇은 판자 조각으로 만든 나무 흙손도 있다. (3) 귀알 물감이나 풀 또는 옷을 칠할 때에 쓰는 기구를 '귀알' 또는 '호추'라고하는데, 이 귀알은 미장이들이 흙손질할 때에 수분 조절용으로도 쓴다. [6] 기타 작업 도구 (1) 벽채 광산(鑛山)에서 버력을 쳐내거나 광석을 굽어 모으거나 파내는 데 사용하는 연자를 벽채라고 하는데 모양은 매우 큰 호미처럼 생겼다. 버력이란, 광물(鑛物)del 섞이지 않은 잡석을 말한다. (2) 징모루 신창에 징이나 못을 박을 때에 신을 얹어서 씌워 받쳐 놓고 두드리는 쇠로 만든 받침대를 '징모루' 또는 '징걸이'라고 한다. 징은 신창이 닳지 않도록 박는 쇠로 만든 납작한 못이나 쇠조각이다. 구둣방이나 구두 수선공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버들넛 옛날에 버드나무로 고리를 엮는 고리장이자 버들가지를 자를 때에 사용하던 작은 낫의 일종이다. 고리버들을 가지고 만든 고리·키·채반·채롱·광주리 따위를 만드는 사람을 '고리장이' 또는 '유기장(柳器匠)'이라고 하는데 이들 기술자들은 신분이 낮은 백정(白丁)이었다. 6. 방적(紡績) 방적(紡績)은 곧 길쌈을 말하는데 우리의 옛 여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생업(生業)의 하나였다.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쳐서 명주 길쌈을 해야 했고 목화를 심어 가꾸어 무명 길쌈을 하였으며 삼(麻)을 가꿔 삼베 길쌈, 모시풀을 가꿔 모시 길쌈을 하여 가족들이 입을 옷을 자급자족하였던 것이다. [1] 무명길쌈 고려 말엽에 문익점 선생이 중국으로부터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목화를 재배하기 시작한 이래 무명 길쌈으로 옷감을 공급하여 의생활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가을에 목화를 채취하여 잘 건조된 것을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목화씨를 빼낸다. 목화씨는 손으로 빼내기도 하고 '씨아'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씨를 뺀 다음 활(弓)이나 솜틀을 이용하여 솜으로 만들어 옷솜과 이불솜으로 쓰기도 하고 길쌈을 하기 위한 실고치를 만들기도 한다. 길이 30~40cm 정도의 실고치를 물레에 돌려서 무명실을 "뽐아내고 이 실을 여러 가닥으로 하여 베틀에 올려 무명 길쌈을 한다. 속달된 부인은 아침 일찍부터 날이 저물때까지 (약 10시간) 20자(6m) 정도의 무명을 짰다. 옷감이 귀하던 옛날에는 무명이 화폐(돈)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었고 이 무명 길쌈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가계를 부유하게 만든 부인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길쌈하는 부인이 세 사람의 농부보다 낫다. (一職婦勝三農夫)'는 속담도 생겼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길쌈으로 돈을 모으는 일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기계화 된 외국 자본의 조면공장이 생기게 되고 중국 상인들이 값싼 외국 목화를 마구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생산한 목화를 가지고 가내 수공업에 의한 무명 길쌈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무명 길쌈은 1940년대 말엽까지 계속되다가 1950년대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무명 길쌈의 순서에 따라 사용되는 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씨아질 목화 송이에서 씨를 제거하는 기구인데 씨아틀·씨아시·씨애기·쌔기·씨애·타리개 등의 명칭이 있다. 시아손을 돌리면서 목화 송이를 가락 사이에 대어 넣으면 목화솜은 앞으로 빠져 떨어지고 목화씨는 뒤에 떨어진다. 시아손이 하나인 것은 혼자서 작업을 하며 좌우에 각각 씨아손이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씨아손을 도릴면서 손쉽게 목화씨를 빼낸다. (2) 솜타기 활로 솜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솜을 탄다'고 하는데; 솜타기에 사용하는 활은 직경 2cm 정도의 대나무를 휘어서 팽팽하게 만들고 사노끈으로 좌우를 바짝 잡아당겨 맨다. 씨아에서 뽐아낸 목화 솜을 땅에 깔고 채 (막대)로 두들겨

알맞게 퍼지게 한 다음 오른손에 활을 잡고 활끈 주위에 솜이 달도록 하여 왼손으로 활줄을 걸어 당겨 진동을 준다. 규칙적으로 활줄이 진동하면, 솜이 부드럽게 부풀어 올라 뭉게 구름처럼 피어 오른다. 이것을 '솜타기'라고 한다. (3) 고치 말기 실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활로 탄 솜을 말대(해사가지)로 말아 고치를 만든다. 말대는 굵기 (직경)가 1cm 내외, 길이 30~40cm 정도의 대나무나 수수깥으로 만들고 고치 길이는 약 30cm 정도의 대롱으로 만들어 물레를 사용하여 실을 자아 낸다. 한 사람이 하루에 약 950본의 고치를 말아낼 수 있다. (4) 물레질 솜이나 털 따위의 섬유를 자아서 실을 만드는 간단한 수공업 도구를 '물레'라 하고 그 작업을 '물레질'이라고 한다. '물레'라는 명칭은 문익점(文益漸)이 만들어 냈다는 데에서 유래한 '문래(文來)'에서 변한 말이라고 한다. 오른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왼손으로 고치 (솜으로 가늘고 길죽하게 만든 것)을 가락 끝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 실이 뽑혀 나온다. 뽑혀 나온 실을 가락에 감아 올리고 다시 물레를 돌려 실을 뽑는데 이러한 작업을 '실을 찾는다'고 한다. (5) 베날기 무명베의 날실(經絲)을 준비하는 과정을 '베날기'라고 하는데 이 때에 쓰이는 용구는 '날틀'과 '걸틀'이 있다. 날실의 가닥 수와 길이는 직물(무명)의 전체 규모와 실의 굵기에 따라 알맞게 조절한다. 실이 가늘면 가닥 수를 많이 하며 베를 짜는데 소요되는 씨(緯絲)의 분량과 균형을 이루도록 날실의 길이를 정한다. (6) 베매기 베를 짜서 직전의 준비 공정이 '베매기' 작업이다. 바디의 구멍에 날실(經絲)을 끼우는 것을 통경(通經)이라 하고 통경한 날실에 풀을 먹이는 것을 가호(加糊)라 한다. 날실에 풀칠을 할 때에 사용하는 솔을 '체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늘고 질긴 락(茅)의 뿌리를 캐어 깨끗이 씻어 말린 것을 가지런히 모아서 소나무 뿌리를 캐다가 얇게 만든 끈으로 예쁘게 묶어 솔을 만든다. 이 '체솔'은 베매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솔바닥을 닦거나 그 밖에 그릇을 닦을 때에도 사용하였다. 가호한 날실을 것불에 말리면서 바디를 사용해 날실을 정연하게 고르는 것을 정경(整經)이라고 하며 이 정경한 날실은 도투마리에 뽕댕이(가늘고 곧은 막대기)를 대면서 감는데 이것을 권사(捲絲)라 한다. (7) 베 짜기 베를 짜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허간 또는 움막 등 적당한 장소에 '베틀'을 장치한다. 이 장소를 '직포장(織布場)'이라고 한다. 베틀 위에 권사(捲絲)된 도투마리를 올려 놓고 앞사침대가 끼워져 있는 날실 사이에 비경이를 밀어 넣어 비경이 아리쪽에 있는 날실을 한올 한올씩 잉아걸이를 사용하여 잉앗실에 걸어 잉앗대에 맨다. 그리고 그 좌우 끝을 눈썹대의 끝 (눈썹노리)에 눈썹줄을 사용하여 매어 연결시킨다. 이어서 베를 짜는 사람이 앞을개 위에 앉아서 부티를 허리에 두르고 부티끈을 말코에 맨다. 그리고 바디에 바딿집을 입혀 비녀를 끼우고 오른 발에 베틀신을 신은 다음, 한손에는 바딿집, 단 한손에는 구리가 들어 있는 북을 잡고 베를 짜기 시작한다. 베를 짤 때에 사용되는 베틀의 주요 부속 도구인 사침대·비경이·바디·바딿집·북·북바늘·꾸리·최활·말코·부티 등의 생김새는 다음 그림과 같다. [2] 명주 길쌈 명주 길쌈도 방법은 무명길쌈과 같다. 다만, 누에고치에서 직접 실을 뽑아서 날실을 날아 도투마리에 감아 베틀에 올려 짜기 때문에 씨아질·솜타기·고치말기·물레질 등의 작업 과정이 없는 대신에 '명주실 뽑기'작업 과정이 있다. 명주실은 천연 섬유 중에서 유일한 장섬유(Filament Fiber)이므로 실뽑기 과정의 공정이나 작업 용구등이 다른 직물에 비해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든다. 먼저 솔에 많은 물을 붓고 수면에 반쯤 찰만큼 누에고치를 넣어 끓인다. 오른손에 잡은 젓가락으로 끓는 물속에 떠 있는 누에고치를 휘저으면 고치의 실이 젓가락에 감긴다. 이 실끝을 찾아 왼손에 모아 쥐고 10개의 고치에서 나온 가는 실을 자애(자새·자위)에 걸어 계속 잡아 당기면서 뽑힌 명주실을 '왕챙이'라고 하는 물레에 감는다. 명주실이 다 뽑히면 번데기만 남게 된다. [3] 모시 길쌈 모시는 모시풀의 껍질을 벗겨서 짠 옷감이데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 옷감으로 매우 좋은 옷감에 속한다. 모시풀은 다년생초로 줄기가 곧고 키는 약 2m 가량인데, 줄기의 굵기는 직경 1.5~2cm 정도이다. 모시풀의 밑동을 베어서 껍질을 대나무로 만든 모시칼로 벗긴 후에 벗긴 껍질의 겉껍질을 모시통으로 벗겨낸다. 그 속껍질을 '태모시'라고 하는데 이 태모시는 별에 말려 표백시킨 후에 다시 물에 적셔 실가닥처럼 가늘게 모시올을 쪼개 낸다. 길이 1m 남짓한 씨실을 만든다. 이것을 '모시삼기'라고 하며 이렇게 하여 만든 날실을 무명베를 나는 방법으로 나는 작업을 '모시날기'라고 한다. '모시날기'가 끝나면 '모시매기'를 하여 '모시짜기'로 이어지는데 그 방법은 무명베를 짜는 것과 동일하다. [4]

삼베 길쌈 삼겹질에서 뽑은 실로 삼베를 자는 작업을 삼베 길쌈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은 모시 길쌈과 거의 비슷하다. 모시는 껌질을 그대로 날 것을 사용하지만 삼베는 삼대(三麻)를 '삼굿'에 넣어 찌서 익힌 다음에 껌집을 벗겨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삼베는 마포(麻布) 또는 대마포(大麻布)라고 하는데 모시처럼 가볍고 통풍이 잘 되어 여름 옷감으로 적격이다. 우리 민족이 삼베옷을 입은 역사는 아득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신라 시대에 중추(仲秋) 행사로 베짜기 경쟁을 하였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이 베짜기 경쟁 행사가 오늘의 추석(秋夕) 명절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한가위'의 기원이라고 전해 온다. [5] 대주 허리띠 짜기 한복 바지에 사용할 허리띠는 천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직접 짜서 사용하기도 했다. 대개 무명 길쌈에 사용하고 남은 실을 여러 겹으로 굵게 만들어 손으로 짜서 집안의 어른인 대주(大主)의 허리띠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굵은 날줄에 작은 비경이와 잉아를 걸어 씨줄을 넣어 가면서 나무칼을 바디 대용으로 사용하여 한올 한올 쳐 나아간다. 원리는 '베짜기'와 같은데 속도가 느리고 구조가 매우 간단한 원시적 방법이다.

7. 침선 (針線) 침선이란, 바느질하는 일을 말함인데 규중(閨中)의 여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옛날부터 '규중칠우(閨中七友)'라 하여 바늘·자·가위·인두·다리미·실·골무 등 7가지를 규중에서 필수적인 침선도구로 소중히 다루었다. 침선 도구와 침선 기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늘겨레 바늘겨레는 바늘을 꽂아 두는 작은 물건인데, 속에다 솜이나 머리털 같은 것을 넣고 형겅 조각을 씌워 만든다. 이것을 '바늘집' 또는 '바늘 방석'이라고도 하며, '침낭(針囊)'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바늘을 꽂아서 위험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비단에 각색의 실로 화초문·새·길상문(吉祥文)·심장생(十長生) 등의 모양을 수 놓아 노리개로 패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바늘 노리개'라고도 하는데 결국 바늘겨레는 실용의 목적과 장식의 목적을 지닌 노리개라고 하겠다.

[2] 반질고리 바늘·실·골무·가위·자·형겅 따위의 바느질 재구를 담은 그릇인데 '바늘질고리'라고도 한다. 모양은 네모 반듯하거나 다각형 또는 직사각형이며 고리안에는 대개 한 모서리에 치우쳐 조그마하게 간막이를 하여 별도로 바늘·단추 등을 넣어 둔다. 반질고리는 그 재료에 따라 지제(紙製)·목제(木製)·죽제(竹製)·자개제·화각제(華角製) 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안과 거죽에는 꽃·새·수복강녕(壽福康寧) 등의 글씨나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오색(五色)의 색종이나 화각(華角)으로 곱게 장식하였다.

[3] 화로(火爐) 화로는 실내 보온과 불씨의 보존 및 차·약·찌개를 끓이는 데에 쓰일 뿐 아니라, 바느질할 때 인두를 꽂아 뜨겁게 달구어 쓰는 인두꽃이로까지 활용하였다. 재료에 따라 질화로·곰돌화로·청동화로·무쇠화로 등으로 나눈다. 화로에는 인두 이외에도 숯불 덩어리를 집는 부룻가락, 화로재를 정리하거나 쥘불을 떠내는 부손(부삽)을 꽂아 두었으며 겨울철에는 빼놓을 수 없는 난방 기구의 하나였다. 질화로에는 늦게 돌아오는 식구를 위해 식지 않도록 찌개뚝배기를 올려 놓고, 늦은 밤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군밤이나 고구마를 구워 먹는 정다운 풍경도 있었다. 옛날에는 불씨가 집안의 재운(財運)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불씨가 담긴 화로를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었으며, 종가에서 분가(分家)해 나올 때에는 그집 맏아들이 불씨를 화로에 담아 가지고 새로 이사해 들어가는 새집에 제일 먼저 들어간 다음에야 이삿짐을 대문 안에 들이는 민속이 있었다.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발화 도구가 없었던 옛날에는 화로의 불씨가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난방 도구로, 바느질 도구로, 불씨 보존 도구로서 애용되었던 화로는 난방 기구의 발달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다. [4] 인 두 인두는 바느질 도구의 하나로서 화롯불에 묻어 놓고 달구어 가며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에 사용하는 소형 다리미라고 할 수 있다. 철제의 삼각뿔 옆으로 누인 것 같은 형태이며 바닥에 넓고 반들반들하며 끝이 뾰족하고 긴 쇠자루 끝에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어 구석진 솔기까지 완전히 꺾어 다릴 수 있는 간편성이 있다. [5] 바느질 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거나 꿰매는 일을 바느질 또는 재봉(裁縫)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바느질의 기초적 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호기(흥질)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인데 형겅을 겹쳐서 땀을 곱결지 않게 성기게 꿰매는 방법이다. (2) 박기 (박음질) 솔기를 튼튼하게 할 때 쓰이는 바느질인데 한 땀을 뜨고 난 다음, 그 바늘땀 전부를 되돌아 가서 다시 뜬다. (재봉틀 바느질은 모두가 이 박음질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3) 감치기 (감침질) 안 쪽에서 감칠 때는 바늘을

곧게 세워 뜨고 대신 실밥이 어긋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겉에서 감칠 때 실밥이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 바늘을 어긋하게 꽂아 뜨는데, 버섯을 감칠 때에 이 방법을 쓴다. (4) 공그르기 창구멍 따위를 마무리할 때에는 표리에 모두 바느질땀이 작게 보이도록 뜨고, 다른 방법으로는 단을 접고 단 안쪽으로 스며 뜨고 겉은 한옥씩 뜬다. (5) 상처기 (상침질) 솔기를 장식하거나 탄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늘땀 수에 따라 한땀상침, 두땀상침, 세땀상침이라 한다. (6) 시치기(시침질) 두 겹 이상의 감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데 천 끝에서 0.5cm쯤 안쪽을 약 3cm 길이로 0.5cm씩 떠서 시친다. 따라서 겉에는 0.5cm 간격으로 3cm씩, 안에서 3cm 간격으로 0.5cm씩의 실땀이 나오게 한다. (7) 사뜨기 골무나 노리개 등 양끝이 마무리 된 것을 합칠 때 쓰이는데, 탄탄하고 장식하는 효과도 나타낸다. (8) 휘감치기 푸서의 울이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개 1cm 간격에 0.5~1cm 깊이로 한 땀 또는 5~6땀씩 휘감쳐 가는 방법이다. (9) 솔기하기 통솔·가름솔·굽솔·쌈솔 등이 있는데 재봉여 대개 1cm 간격에 0.5cm~1cm 깊이로 한땀 또는 5~6땀씩 휘감쳐 가는 방법이다.

V. 건축(建築)·공예(工藝) 1. 익공(翼工)집 궁전(宮殿)·줄전(佛殿)·문묘(文廟)·서원(書院)·문루(門樓)·정각(亭閣)등의 건축물은 포살미한 익공(翼工)집에 속한다. [1] 기둥머리 (1) 무입궁(無入宮) 무입궁을 '無翼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기둥 머리에 익공(翼工)이 없이 '소로받침'만으로만 되어 있는 건축양식을 말한다. 익공(翼工)이란, 첨차위에 얹혀 있는 짧게 아로새긴 나무인데 초방(草防) 끝에 '쇠서'로 되어 있다. 기둥 위에 익공을 얹어 지은 집을 '익공집'이라 하는데, 단익공(單翼工)·이익공(二翼工)의 두 종류가 있다. (2) 초입궁(初入宮) 전각(殿閣)이나 궁궐(宮闕)처럼 포살미한 집의 기둥위에 얹히는 한 개의 촛가지가 달린 마루를 초입궁(初入宮)이라고 하며, 이것을 단익공(單)이라고도 한다. 민가의 도리는 네모진 '민도리'를 스지만, 익공집에서는 둥글게 깎은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3) 이입궁(二入宮) 단익공보다 더 멋을 내기 위하여 기둥 위에도 두 개의 촛가지 달린 익공을 얹어 지은 집을 '이입궁(二入宮)' 또는 '이익공(二翼工)'이라고 한다. [2] 포살미집 포(包)를 차린 것을 '포살미'라 하고, 포(包)를 차려 꾸민 집을 '포살미집'이라 한다. 여기서 '포(包)'라 함은 초제공(招提拱)이나 이제공(二提)에 쑥쑥 내민 '촛가지'를 말하며 또 '쇠서'라고도 한다. 이 포(包)가 세겹으로 된 것을 '삼포(三包)'라 하고, 주두(柱料)와 삼포마으로 지은 포살미집을 주삼포(柱三包)라 한다. (1) 초제공(招提拱) 주삼포(柱三包)의 집에는 기둥위에 초방과 교차하여 짜고, 삼포 이상의 집에는 주두 위에 장화반(長花盤)과 교차하여 짜는 물건을 초제공이라 한다. 장화반은 공청(空廳)이나 사찰(寺刹)의 법당(法堂)같은 건축물에 쓰이는 길이 잔 화반(花盤)인데, 화반(花盤)과 두공(頭工)을 겸하여 초제공과 교차하여 짠다. 장화반을 '천리화반(千里花盤)'이라고도 한다. 두공(頭工·枋拱·杜空)은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며 차례로 짜올린 구조인데, 공청(空廳)이나 불벽(佛壁)에 있어서 장화반 대신으로 쓰는 나무이다. (2) 이제공(二提拱) 주삼포(柱三包)의 집 기둥에 덧붙이는 '쇠서받침'을 이제공(二提拱)이라 한다. 쇠서받침이란, 전각(殿閣)등의 기둥위에 덧붙이는 소의 혀와 같이 생긴 장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쇠소' 또는 '우설(牛舌)'이라고도 한다. (3) 삼제공(三提拱) 오폭(五包)로 된 집의 기둥위에 덧붙이는 쇠서받침을 삼제공이라 한다. 삼제공의 오폭(五包)에는 중교두로 꾸미는데, 이것은 교두를 이중으로 중첩시킨 것이다. 살미(山彌)는 궁전이나 성문 같은 큰 건물의 기둥 위 도리 사이에 장식하는 촛가지로 짜사 만든 물건을 말하며, 첨차는 삼포(三包)이상의 집에 있는 꾸밈새인데 이제공(二提拱)들이 가운데에 어긋매겨 짜는 것이다. (4) 사제공(四提) 촛가지가 7개인 칠포작(七包作)의 집 기둥위에 덧붙이는 쇠서받침을 사제공이라 한다. 포작(包作)이란, 처마끝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 같은 데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들인데, 이것을 공포(拱包·貢布)라고도 부른다. [3] 포살미에 쓰이는 부품들 (1) 초익공(初翼工) 포살한 집의 기둥위에 얹히는 한 개의 촛가지가 달린 나무이다. (2) 이익공(二翼工) 촛가지가 둘로 된 익공(翼工)을 이익공(二翼工)이라고 한다. (3) 안초공(按草) 기둥머리에 얹어서 주심포(柱心包)를 받드는 초각반(初刻盤)이다. 주심포는 기둥머리 바로 위에서 받친 공포(貢布)를 말한다. (4) 행공(行工) 주심포(柱心包)에 있어서 외도리(外道里)와 장설(長舌)을 받친 첨차를 행공(行工)이라 한다. (5) 운동(雲工) 포살미를 한 집의 첨차사이에 끼는 조그마한 널죽을 운공이라 한다. (6) 대공(臺工) 들보위에 세워 마룻보를 받치는 짧은 기둥을 대공이라 한다. (7) 한 대(限大) 팔작집의 네 귀의 촛

가지에 모로 나온 나무토막을 한 대라고 한다. (8) 화반 (花盤) 초방(草防)위에 장여를 받치기 위하여 끼우는 널조각을 화반(花盤)이라고 한다. 초방(草防)은 기둥을 세우고 처음으로 끼우는 중방을 말하며, 장여는 도리 밑에서 도리를 받치고 있는 모진 나무인데, 보통 세치의 두께에 높이가 다섯치 되는 기다란 각목(角木)을 사용한다.

[4] 포살미집의 지붕 구조 포살미한 익공집의 지붕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5] 포살미집의 전면 구조 궁전, 사찰, 서원, 사우(祠宇)등의 포살미집 전면 구조를 보면, 갈모산방, 장여, 장화반, 교창, 인방, 사분합, 문설주, 머름중방, 하방, 어이동자, 머름청판, 소슬동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포살미집의 전면 구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6] 당집(唐家) 당집은 임금이 앉아 있는 옥좌(玉座)나, 부처를 모신 법당(法堂)의 위에 장식으로 만들어 다는 작은 모형의 집을 말한다.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이 당집은 장엄한 느낌을 주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금은주옥(金銀珠玉)으로 꾸며 놓았다. 2. 지붕보양 한옥(韓屋)의 지붕은 짚·띠풀·기와·돌·대나무 등으로 덮였으며, 현대에 와서 함석·스레이트 등을 사용하였다. 지붕의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든, 그 모양은 대개 올진각, 팔작집, 맛뚱집, 샛갓집 등 네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우진각 네 귀퉁이(四隅)의 추녀 마루가 동마루에 몰려 붙은 지붕으로 지은 집이다. 이 우진각은 초가지붕·기와·함석 등 모든 지붕에 가장 흔한 양식이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2] 뱃집(맛뚱집) 추녀가 없이 양쪽에 박공만 붙여 끝은 듯이 마물러 지은 집이다. 이 맛뚱집은 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으며 다만, 불전(佛殿)이나 사당(祠堂)·정려각(旌閭閣)등의 특수한 건물에만 사용되는 건축양식이다. [3] 샛갓집(사모집) 지붕을 샛갓 모양으로 지은 집이다. 지붕의 재료는 짚, 기와, 띠풀·함석·스레이트등 무엇이나 사용되며, 시골에서는 원두막이나 모정(茅亭)을 샛갓집으로 지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밖에 정각(亭閣)을 샛갓집으로 지은 예가 많다. 네 귀마다 추녀를 달아서 지은 집이다. 이 팔작집은 기와·함석·돌·스레이트 등으로 지붕을 덮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전통적 한식 기와로 덮는 것이 원칙이다. 민가(民家)나 궁전(宮殿)·불전(佛殿)에 이 팔작집을 사용하는데, 규모가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지니고 있다. (1) 팔작집의 지붕모양 ① 박공: 합각머리나 마루머리에 '人'자 모양으로 붙인 두꺼운 널을 '박공' 또는 '박푹'이라고 하며, 팔작집의 박공은 '까치박공'이다. 까치박공은 대마루의 양쪽 머리에 '人'자 모양으로 붙인 널빤지 인데 이것에는 합각(合角), 지네철, 종자쇠, 현어(懸魚) 따위의 부속품들이 있다. ▷합각(合角): 지붕 위쪽의 옆에 박공으로 '人'자 모양을 이룬 각(角)을 합각이라고 한다. ▷지네철: 박공의 두쪽을 마주대는 이음매에 걸쳐 박는 지네 모양으로 생긴 첫조각인데, 이것을 '오공철'이라고도 한다. ▷종자쇠: 장식하기 위하여 박는 못의 일종인데 못대거리에 구리나 놋쇠따위로 볼록한 모양의 꽃모양을 끼워서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모양을 내었다. 까치박공이나 대문 같은 데에 박아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구밀 때에 쓰인다. ▷현어(懸魚): 구리나 놋쇠 따위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합각머리의 지네철 아래에 거꾸로 매달린 모양으로 박아 꾸미는 장식품을 현어라 한다. ②취두(鷲頭): 취두는 체례로 쓰이는 기와의 일종인데, 전각(殿閣)이나 문루(門樓)같은 큰 건물의 용마루나 지붕골의 끝에 얹는다. 독수리의 머리처럼 특 볼거지고 모가난 두 뺨에 눈알교와 깃모양의 선과 점을 새겼다. 이 취두를 '망새', '취와(鷲瓦)', '치문', '치미'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의 민가에는 이 망새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대신으로 '내림새'를 쓴다. 내림새는 한 끝에 반달모양의 허가 붙은 암키와인데, 기왓고랑 끝에 낙수받이로 붙이는 기와이다. ③용두(龍頭): 망새의 일종으로용의 머리 모양처럼 되어 있다. ④잡상(雜像): 궁전이나 전각의 추녀, 용마루 또는 박공머리 위에 덧엮는 여러 가지 짐승형상이나 손오공 모양의 기와를 잡상이라고 하며, 또 '귀룡자(鬼龍子)'라고도 한다. (2) 추녀 처마 네 귀의 기둥위에 걸리는 네모지고 긴끝이 번쩍 들린 큰 서까래와 그 위에 내림새 마루를 추녀라고 하며 또 '충설(衝舌)', '충연(衝椽)'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추녀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서까래와 그 부속물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추녀장혀: 추녀의 중심선 맨 아래에 혀처럼 길게 뻗어 나온 굵은 서까래의 일종이다. ②선자(扇子): 선자는 곧 '선자' '추녀'를 말하는 것으로 부채와 같이 만든 추녀를 말한다. 추녀에 가까이 있는 서까래를 안목을 점점 가늘게 다듬어서 끝은 벌어지고 안쪽은 한데 붙은부채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추녀 장혀에 붙은 첫 번째 서까래를 선자 초장이라고 한다. ③부연(附椽·婦椽): '추녀장혀' 끝에 덧엮어 높이

숫아 모양이 나게 만든 서까래를 부연이라 하며, 또 '머느리 서까래' 또는 '사연(師椽)', '모끼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부연 바로 옆에 대는 서까래를 '부연 초장'이라 하고 그 다음 것은 '부연 이장'이라 하며 또 그 다음 것은 '부연삼장'이라 한다. 부연 초장은 반쪽의 서까래를 쓰는데, 이 부연 초장을 '불임혀'라고도 부른다.

④토수(吐首) : 지붕 네 귀의 추녀 끝의 부연에 끼우는 용머리 모양이나 거북 머리 모양으로 만든 기와의 일종인데, 장식으로 쓰이면서, 부연 서까래가 비에 젖지 않도록 하는 구실도 한다. ⑤방연(方椽) : 네모지게 깎은 서까래를 방연이라 한다. ⑥평고대(平高臺) : 처마 끝에 가로놓은 오리목을 '평고대' 또는 '교대(平交臺)'라 한다. ⑦풍경(風磬) : 작은 종처럼 만들고 그 속에 붕어 모양의 쇠조각을 달아서 바람이 부는대로 흔들리며 맑은 소리가나도록 처마 끝에 매다는 경쇠를 풍경이라 하며, 또 이것을 '풍령', '풍탁(風鐸)' 또는 '첨마'라고도 부른다.

3. 가구(家具) 우리 저통 가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농(籠), 삼층장, 의걸이장, 반달이, 가께수리, 문서궤, 함(函), 피롱(皮籠), 행담(行擔)등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목공예품으로서 훌륭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현대식 주택에도 이러한 전통가구들을 구비하고 있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다. [1] 농(籠) 의복을 넣어 두는 옷장인데, '장롱'이라고도 부른다. 오동나무나 괴목(槐木)으로 짠 것을 값지게 여긴다. 농의 종류로는 장롱, 앞달이, 뒤주, 이거리, 금침장 등이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을 하였다. [2] 삼층장 삼층으로 된 의장이다. 두 층으로 된 장롱보다 더 정교하고 화려하며 삼층이어서 규모도 크다. 재료는 오동나무, 괴목, 참죽나무 등을 사용하며, 작은 각목과 좁다란 널빤지 를 정교하게 깎아 맞추어 입체적 무늬를 이루고 음각 또는 양각의 민화를 조각하거나 자개로 무늬를 박기도 했다. [3] 의걸이장 위에서 옷을 걸어 두고 아래는 반달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옷을 개어 넣게 된 장이다. 위쪽 중앙부에 햇대를 가로 질러 장치하여 도포(道袍)·창의·두루마기 등 긴옷을 걸여 걸어서 구겨지지 않게 하는 옷장이다. 일반적으로 나뭇결이 좋고 가벼운 오동나무를 사용하며, 앞면에다 산수(山水)·매화·대나무 또는 시문(詩文)을 음각하거나, 구름·용·호랑이 등의 민화풍의 그림을 양각한 것도 있다. 그리고 아자문(亞字文)·만자문(卍字文)등의 살창으로 된 것도 있어, 안방이나 사랑방 주인의 취향이나 부귀(富貴)의 정도를 나타내었다. [4] 반달이 두터운 궤 모양으로 된 가구의 하나인데, 가구 중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앞의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있어 아래로 젖혀 여닫게 되었다. 책·두루마리·의복·옷감·제기(祭器) 따위를 넣어 두는데 사용한다. 참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두터운 널빤지 로 만들어 목직하게 무쇠장식을 하였는데 지방에 따라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종류의 반달이가 있다. [5] 가께수리 여인들이 화장할 때에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간직하는 작은 함(函)의 일종이다. 앞에 두짝의 문을 달아 대문처럼 여닫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여거개의 작은 서랍과 선반이 있다. 여기에는 화장품, 거울, 빗, 머릿기름, 패물 따위를 넣어 둔다. 완판본(完板本)과 경판본(京板本)의 춘향전에도 이 가께수리가 춘향의 방에 놓여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여인들이 가께수리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6] 문서궤 토지문서, 계약서, 차용증서 같은 중요한 문서를 넣어 보관하는 상자이다. [7] 함(函) 옷을 넣어 두는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아래 짝은 깊고 위의 뚜껑은 작고 얇게 되어 있다. 이 함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예물을 담아 보내는 상자로 이용하는데 이 절차를 구식혼례에서 납폐(納幣)라고 한다. 이 함에 담아 보내는 예물은 청단(靑緞)과 홍단(紅단緞)의 비단과 함께 혼서지(婚書紙)를 넣고 보에 싸서 함진아버가 짊어지고 신부집에 간다. [8] 피롱(皮籠) 물건을 담아 먼 길을 갈 때에등에 지고 가는 작은 상자인데 생김새는 함과 비슷하다. 나무판자로 짠 것도 있고 싸리나무나 고리버들로 결어서 만든 것도 있다. 4. 유기(柳器) 고리버들로 만든 키, 고리짝, 광주리 따위를 유기(柳器)라고 하며, 유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유기장(柳器場) 또는 '고리장이'라고 부른다. 고리버들은 버들과 속하는 낙엽 교목이며 버들의 일종으로 키는 1~3m이고 가는 가지가 밀동에서 많이난다. 산이나 들, 냇가의촉촉한 땅에 자생하는 이 고리버들을 베어다가 여러 가지 유기(柳器)를 만든다. [1] 키 곡식 등을 까불어 쪼정어, 티끌, 검부러기 등을 골라내는 기구인데, 고리버들이나 대쪽을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만든다. [2] 고리 껌질을 벗긴 고리버들의 가지나 대오리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들어 옷을 담는 데에 쓴다. 이 고리를 '고로', 또는 '유기(柳器)'라고도

하며, '고리짝'이라고도 한다. [3] 동고리 동글납작한 작은 버들고리인데 바늘집, 실패, 가위 등을 넣어두는데 사용한다. 흔히 '바느질고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반질고리'라고도 한다. [4] 도시락 흔히 점심밥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데 쓰이는 그릇인데, 고리버들이나 대오리로 결은 타원형의 작은 고리짝이다. 따라서, 점심밥이나 저녁밥을 사가지고 다니는 것을 모두 '도시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5] 광주리 고들버들, 대나무, 싸리나무 따위로 엮어 만든 그릇인데 바닥이 동글고 촘촘하며 전을 성기고 높게 되어 있다. [6] 채롱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고리버들 따위로 결어서 함(函)모양으로 만든 그릇인데, 안팎을 종이로 바르기도 한다. 여기에 마른 옷이나 피륙을 넣어 둔다. [7] 채반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고리버들로 울이 없이 동글게 만든 춤이 없는 채그릇인데 국수를 건져 놓거나 채소 따위를 썰어서 널리 말리는 데에 사용한다. [8] 바구니 대나무나 싸릿개비, 고리버들 따위로 동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인데 테두리에 대나무를 서너겹 돌려 손잡이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사투리로는 '바구리'라고 한다. [9] 발 싸리·겨릅대 등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 사이를 엮어 자리처럼 만든 물건인데 고추나 목화송이 따위를 널어 말리는 데에 쓰인다. 5. 부채 부채는 손에 쥐고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켜 더위를 덜게 하거나 불을 피우는 데 쓰이는 물건이다. 그리고 의례용 또는 장식용으로도 쓰이는 부채도 있다. 혼례때에 신랑·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차면용(遮面用) 부채도 있고 남자가 행차할 때에 얼굴을 가리는 우선(羽扇)·모선(毛扇)·포선(布扇)등은 의례용 부채이고 화가나 서예가 또는 문인들이 부채에 그림이나 시구(詩句)를 써넣은 것을 집안에 걸어두는 것은 장식용 부채이다. 그밖에 한국 고전무용에 부채를 가지고 춤을 추는 부채춤이 있고 무녀(巫女)나 승려(僧侶)들이 부채를 들고 가무(歌舞)하는 데에도 쓰였다. 부채는 내방(內房)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선류(團扇類)와 외방(外房)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죽선류(合竹扇類)로 나눌 수 있는데 흔히 스는 부채는 다음과 같다. [1] 단선류(團扇類) 단선(團扇)은 철 부채로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방구부채를 말하는데 모양이 오동잎·연잎·연꽃·파초잎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내방(內房)에서 부녀자나 아이들이 사용했다. (1) 드림부채 가난한 농가에서 벗짚, 밀짚 또는 줄풀 따위를 엮어 만든 투박하고 토속적인 부채이다 더운 여름철에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름밤에는 모기를 쫓는 데에도 사용했던 자급 자족의 원시적 부채이다. (2) 부들부채 부들의 줄기를 엮어 만든 부채이다. 부들은 개울가나 연못 같은데에 자생하는 다년생(多年生) 풀인데 키는 1m이상이고 잎은 선형(線形)으로 길고, 너비는 2cm가량이다. 줄기를 베어다가 말려서 돛자리, 부채따위를 만든다. (3) 윤선(輪扇)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동글기 때문에 윤선(輪扇)이라고 한다. 손잡이 막대기 두 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접으면 마치 합죽선처럼 일직선이 되고 두 개의 손잡이 막대를 벌려 360°로 퍼면 둥근모양의 부채가 된다. 윤선을 동글게 폈을 때에 반원은 청색, 나머지 반원은 홍색으로 곱게 꾸민 것을 '청홍선(靑紅扇)'이라고 불렀다. (4) 곱장선 곁살의 사복근처에 곱은 뾰나 검은 나무쪽을 부쳐 만들고 곡선을 이룬 부채살이 유지(油紙)를 통하여 아름답게 보이며 유지에는 화초 등의 그림을 그린 부채인데 '곡두선(曲頭扇)'이라고도 하며 부채살이 오동나무 잎의 엽맥(葉脈)처럼 꼬부라졌기 때문에 '오엽선(梧葉扇)'이라고도 부른다. (5) 태극선(太極扇) 태극 모양을 그린 둥근 부채인데 음양사상의 원리를 존중하는 우리 한국 민족은 이 태극선을 특히 좋아하였다. (6) 세미선(細尾扇) 부채살을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만든 부채인데 가볍고 바람이 잘 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널리 애용되었다. (6) 백우선(白羽扇) 하얀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동글게 엮어 만든 단선(團扇)인데 매우 가볍고 바람이 잘 나는 최고급의 부채이다. 옛날 중국의 삼국시대에 촉한의 제갈공명이 항상 손에 백우선(白羽扇)을 들고 다닌 고사는 유명하다. (8) 진주선(眞珠扇) 혼인예식을 올릴 때에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데에 사용하는 부채인데, 보통 부채보다 규모가 크고 손잡이 모양을 아름다운 곡선미를 살려 조각한 데다가 진주(眞珠)구슬로 화려하게 장식을 한 부채이다. 이 부채는 실용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의식용이기 때문에 부채의 전체가 장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합죽선류(合竹扇類) 합죽선(合竹扇)은 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 살을 만들고 종이 또는 청견을 발라서 만든 부채인데, 양쪽가의 굽은 대가 되도록 마디가 짧은 것을 택하고 고리는 은·백동·놋쇠 등으로 만들며 그 고리가 달린 부분에 뾰 또는 뿔을 예쁘게 조각하여 붙인다. 합죽선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지니고

다니기 편리하며, 무희(舞姬)나 무녀(巫女)들이 이것을 가지고 춤을 출 때에 흔히 사용했다. 함축선을 접었을 때 손잡이 부분이 모양이 매미의머리처럼 생긴 것을 '선두(蟬頭)'라 하고 끝은 둥그스름하게 생기고 손잡이는 직선으로 된 것을 '승두(僧頭)'라고 했다. [3] 포선(布扇) 포선은 상제(喪制)가 외출할 때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물건인데 장방형(長方形)의 뱃조각에 대로 된 두 개의 자루가 붙어 있다. 상제가 사용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상선(喪扇)'이라고도 한다. 6. 무늬(紋樣) 물건의 겉면에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낸 모양을 부늬, 문(紋), 문채(紋彩)라고 하는데 옷감이나 조각(彫刻) 따위에 장식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오늘날에는 꽃무늬, 물결무늬, 물방울무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전통 무늬는 뇌문(雷紋), 구름문(雲紋), 능화문(菱花紋), 보상화문(寶相花紋), 완자문(卍字紋), 사반원문(四半圓紋), 얼음문(紋), 벽돌문, 석쇠문 등이 있었다. [1] 뇌문(雷紋) 발이나 돛자리 또는 기물 등의 가장자리에 직선을 이리저리 꺾어서 번개 모양을 그려 넣은 무늬를 뇌문(雷紋)이라고 한다. 종묘 제사에 쓰는 제기에 번개무늬를 넣은 '뇌문이'가 있으며 번개무늬가 있는 '뇌문정(雷紋鼎)'도 있었다. 그리고 좀 단순한 뇌문(雷紋)도 있다. 정방형의 가운데 마다 우뇌를 상징하는 무늬 하나씩 그려 넣은 것이 있는데 너무 단조로워 예술성이 적다. [2] 방원문(方圓紋) 네모(方)와 동그라미(圓)로 이루어진 무늬로서 매우 단순한 구성이다.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는 뜻을 상징하는 무늬라고 한다. [3] 구름문 구름이나 새가 나는 모양을 본 뜬 무늬인데 운문(雲紋) 또는 괴운문(怪雲紋)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나는 비단에 구름무늬가 있는 것은 운문 대단(雲紋緞)이라고 하여 많은 사라 들이 애용하였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운학문(雲鶴紋)은 유명하다. [4] 종자문 '수복(壽福)'이라는 한자를 예쁘고 아름다운 무늬 글자로 꾸며서 만든 것을 '종자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발달해 온 한자의 글씨체는 하나의 글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여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목숨수(壽)'와 '복(福)' 두글자는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므로 이 두 글자로 '종자문'을 만들었다. [5] 능화문(菱花紋) 마름꽃을 능화(菱花)라고하며 마름모 모양으로 된 기하학적 무늬를 능화문(菱花紋)이라고 한다. ▷이귀매듭 ▷파리매듭 ▷나비매듭 ▷별매듭 ▷소차매듭(세벌감개매듭) ▷대차매듭(네벌감개매듭) 이밖에도 외벌도래매듭·도래매듭·단추매듭(연봉매듭)·장자리매듭·아경매듭·동심결매듭·생쪽매듭·장구매듭(귀매듭)·가지방석매듭·난간매듭·국화매듭(두벌감개매듭)·다섯벌감개매듭·사색판매듭(바둑매듭)·가재운매듭·게눈매듭·꼰디기매듭·날개매듭·전복(戰服)맨,ㅂ·망사매듭·생동심결매듭·죽은동심결매듭·흔백매듭·가락지매듭 등이 있다. 그리고 갖가지 색사(色絲)로 이루어진 끈목으로 다양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장식하여 늘어뜨리는 유소(流蘇)가 있는데 조선후기에는 실내장식 전반에 걸쳐 유소를 폭 넓게 사용하였고 각종 악기 불구(佛具)등에도 수식과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8. 고공품(藁工品) 뿔짚을 이용하여 만든 물건들을 고공품이라고 하는데 이 짚으로 새끼, 초가의 지붕, 짚신, 명석등 다양한 고공품을 만들어 이용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1] 섬 가마니보다 크게 짚으로 만들어 곡식을 담느네에 쓰는 먹서리이다. 짚막한 나무 토막 10여개에다 가는 새끼를 감아 기다란 서까래를 가로 걸쳐 놓은 위에다 걸어 놓고 짚을 대면서 기적자리를 엮듯이 엮은 다음에 반으로 겹쳐 양쪽 가장자리를 다시 새끼로 엮어 매어 섬을 완성한다. [2] 먹서리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으로 넣고 만든 그릇인데 바닥은 직사각형이며 울이 깊은데 고리를 달아 걸어 두거나 곡식을 담아 나르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먹서리를 준말로 '먹'이라고 부르며 또 '먹자(篋子)'라고도 한다. [3] 먹동구미 짚으로 둥글고 울이 깊게 엮어 만든 그릇인데 곡식이나 책소 따위를 담는데에 쓰인다. 저에다 말굽 쇠 모양의 굽은 나무를 넣어 손잡이로 삼기도 한다. 이 먹동구미를 준말로 '등구미'라고 부른다. [4]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에 스는 그릇인데 가는싸리나 대오리, 첩 또는 짚, 새끼 등으로 엮어 만든다. 앞은 벌어지고 좌우양편은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 뒤는 우긋하여 들고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다. 사투리로 '삼태미'라고도 부른다. [5] 구럭 새끼를 그물처럼 떠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인데 섬이나 오쟁이처럼 사용한다. 이 구럭을 '망태' 또는 '망태기'라고도 한다. [6] 짚신삼기 짚신이나 미투리를 삼을 때에 신날을 걸어 놓고 작업을 하는 틀을 신틀이라고 한다. 짚신의 신날을 4개이고 미투리는 6개의 날을 사용하는데 제작방법이나 모양새는 비슷하다. 신틀에 걸어 놓고 삼아낸 짚신이나 미투리

의 모양을 보기 좋게 다듬기 위하여 신고(짚신골)을 이용한다. 신골을 앞골, 뒷골, 뺨기등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짚신이나 미투리의 앞부분(신고)에 앞골을 넣고 뒤축(신뒤꿈치)에다 뒷골을 넣은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 뺨기를 끼워 팽팽하게 하고 나무 송곳을 이용하여 신발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손질한다. [7] 기직자리 짜기 기직자리는 '초석(草席)'이라고도 하는데 왕골껍질로 만든 돛자리의 일종이다. 기직자리를 매는 틀을 '자리틀' 또는 '기직틀'이라고 한다. 오아골이나 부들, 짚 따위를 재료로 삼아 자리를 짜는 자리틀은 두 개의 나무를 세우고 그 끝에 건너 지른 둥근 나무에 일정하게 홈을 파서 날을 감은 고드랫돌을 앞뒤로 걸쳐 놓고 자리를 엮는다. 고드랫돌은 발이나 돛자리를 엮을 때에 날을 감아 매어 늘어뜨리는 주먹만한 돌 또는 네모진 나무에 새끼를 꿰거나 엮어서 늘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8] 돛자리 짜기 돛자리는 왕골이나 골풀 등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짠 자리인데 '석자(席子)'라고도 부른다. 돛자리를 짜는 틀을 돛자리틀이라고 하는데 생김새는 가마니틀과 동일하다. 다만 새끼를 날로 사용하는 가마니틀의 바디구멍이 큰데 비하여 노끈을 날로 사용하는 돛자리틀의 바디는 구멍이 가늘게 되어 있을 뿐이다. 돛자리틀은 굵고 두툼한 나무로 직사각형의 틀을 짜고 양편에 두 개의 기둥을 비스듬히 박아 그 기둥 끝에 둥근 나무로 된 도리를 가로 끼웠다. 이 도리와 밑의 바탕받침에 날을 둘러 감아 바디구멍에 켜 다음 바늘대에다 가늘게 쪼개 말린 왕골이나 골풀을 먹여 넣어 바디로 다져가며 자리를 짠다.